

# 94년 SOC 투자의 예상 효과와 보완책

俞炳圭\*

정부는 94년에 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크게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94년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稅收 이외의 재원 확보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지출 증대에 따르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위축 문제(구축 효과: crowding-out effect)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

## 대폭 증가된 94년 SOC 확충 예산

94년 예산 구성을 보면 정부가 도로·철도·항만·用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업비 지출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용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94년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액은 6조 772억 원이다.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국방비를 제외한 94년 분야별 사업비 예산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94년 일반 사업비 예산 배정액인 12

조 2,845억 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며, 90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인 3조 93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나 큰 액수이다. 이에 따라 94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예산 증가율은 29.9%로,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율인 19.2%보다 크게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도로 확충, 공항 건설, 지하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공항 건설 그리고 도로 확충 부문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70.6%, 63.4%, 34.9%로 94년 SOC 투자 증가율인 29.9%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절감키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94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 내용  
(단위: 억 원)

	93년예산	94년예산	증감률(%)
도로 확충	21,049	28,396	34.9
철도 수송	12,363	13,560	9.7
지하철	3,810	6,500	70.6
공항 건설	1,959	3,201	63.4
항만 개발	3,560	4,261	19.7
다목적댐 및 치수	3,272	3,920	19.8
공업단지	782	934	19.4
계	46,795	60,772	29.9

자료: 경제기획원, 「1994년도예산(안)」, 1993. 9.

\*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론 경제 전공

## SOC 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하나는 貯量(stock) 측면에서의 효과이고, 또 하나는 流量(flow) 측면에서의 효과이다. 저량 효과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내의 효율성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로 정비는 제품의 수송 속도와 수송비를 절감시켜서 기업의 생산성과 국내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저량 효과의 또 다른 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과 자원의 절약 그리고 국토 이용의 증진 작용을 하는 것이다. 즉 治水 투자의 확충은 하천 재해에 의한 일반 자산이나 영업상의 손실 및 농작물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해 경감 효과를 갖는다. 또한 신설 도로 투자 등은 국토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며, 하수도와 도시 공원 정비 등도 주거·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저량 효과는 사회간접자본의 내구재 성격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지속하는 특성을 띤다.

유량 효과는 공공 투자의 확대가 케인즈적인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발생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는 산업 연관 분석상의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

각 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늘어나게 하여 부가가치 산출량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효과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 증대가, 민간 가용 재원을 공공 부문으로 이전시켜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줄게하는 구축 효과도 유량 효과에 속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량 효과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나 유량 효과는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94년에 GNP 1.8%, 도매 물가 0.9% 상승 요인 발생

94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해 추정해 보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2> SOC 투자의 예상 효과

	조세 수입의 경우			국채 조달의 경우		
	GNP	도매 물가	고용	GNP	도매 물가	고용
94년	1.8	0.9	0.5	2.5	1.2	0.6
95년	-0.3	-0.1	0.0	-0.3	-0.1	0.1
96년	-0.2	-0.5	-0.1	-0.3	-0.6	-0.2
97년	0.1	-0.3	-0.0	-0.1	-0.1	-0.0

주: 1) 수치는 94년 예산(안)에 계상된 SOC 투자의 예상 투자 효과로서 각 부문별 증가율(%)을 나타냄.

2) 「KDI 분기별 예측 모형」에 의해 계산된 순해외 자산을 외생화한 경우의 지출 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된 것임.

1) 한국개발연구원외, 「社會間接資本 隘路要因分析 과 政策 課題」, 1991. 12., 24~25 쪽.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일단 경기 상승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94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에<sup>2)</sup>, 투자 효과 발생의 당해 연도인 94년의 국민 총생산과 고용은 각각 1.8%와 0.5%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기 상승 효과와 함께 물가 상승 효과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르는 94년 도매 물가 상승 압력은 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2차 연도부터 경기 상승 효과가 점차 약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장은 2차 연도부터 負의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효과도 2차 연도에 크게 약화되어 3차 연도에는 負의 효과를 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2차 연도부터 소멸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르는 구축 효과가 2차 연도부터 實現됨을 의미한다.

##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물가 안정 기반 조성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저량 효과에 의해 성장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표 2>에서 4년차부터 正의 성장 효과가 미약하나마 다시 나타나면서, 물가도 하향 안정

효과를 떨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내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채 발행의 구축 효과가 더 크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財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조세 수입과 국채 발행에 의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94년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재원 조달 방법을 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해 보면, 국채 발행에 의한 경우가 조세 수입에 의한 경우보다 당해 연도의 성장 효과가 더 큰 반면에 구축 효과의 크기와 지속 기간은 더 크고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가처분 소득 탄력성보다 더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건설업 성장에 크게 기여

한편 산업 연관 분석표를 통해 94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르는 총부가 가치 유발액을 계산해 보면 4조 7,402억 원이 된다. 이는 경상 기준 93년 국민 총생산 추정액과<sup>3)</sup> 비교하면 94년에 1.9%의 명목 성장 요인이

2) 이는 조세 수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임.

3) 93년 경상 기준 국민 총생산액은 93년 예상 실질 경제 성장률 4.8%에 추정 소비자 물가 상승률 5.8%를 합한 것을 명목 성장률로 하여 이를 92년 경상 국민 총생산에 곱하여 계산한 것임.

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건설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의 성장에 기여한다.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르는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액을 추정할 것이 <표 3>이다. <표 3>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총부가가치 유발액 중 46.8%에 해당하는 2조 2,000억 원이 건설업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건설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94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조 원)

총액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금속 제 품·기계	비금속 광물제품
4.7	2.2	0.5	0.4	0.3

주: 수치는 94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액에 산업연관표상의 정부 고정 자본 형성의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곱한 것임.

### 효과적인 民資 활용·금리 안정 대책이 필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4년에 유류 관련 특별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유류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4년에는 93년의 유류 특수세 때의 1조 9,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이 많은 3조 2,000억 원의 稅收 확보가 가능케 되었다. 이는 93년 稅收額보다 68.4%가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교통 시설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수송 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94년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93년의 경우에 경기 침체로 인한 稅收 부족액은 1조 4,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稅收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民資 유치 방안을 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활발한 民資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과 투명한 사업 추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94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기로 한 '民資 유치 특별법'에는, 소요 자금을 여신 한도에서 제외, 상업 차관 허용, 사회간접자본 주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정부 소유 토지나 공원·도로·공유수면·하천과 같은 국유 재산의 무상 점유 허용, 요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과 같은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民官 합동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우선 순위와 투자자 결정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르는 단기적인 구축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94년 통화 운용을 신중적으로 하여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르는 금리 상승의 압력 요인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